

Vol
001

Hi 한마음

2022 SUMMER

건강한
마음

완벽한
미디어

CHANGWON
HANHEART
HOSPITAL



창원한마음병원
CHANGWON HANMAEUM HOSPITAL

Hi 한마음

Hanheart Magazine
2022 Summer
Vol. 001



QR코드를 통해 창원한마음병원의
다양한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2. 08.
발행인 하충식
발행처 창원한마음병원 055-225-0000
홈페이지 www.hanheart.co.kr
편집인 김영훈
편집실 김민정
디자인 크리에이티브마루 055-714-7755

건강한-마음

SPECIAL

- 04 발간사_하충식 이사장
- 05 인터뷰_최경화 의료원장

THEME

- 06 아시아 의료 허브를 꿈꾸는
한마음, 새로운 내일로 향하다

의료·의료인

- 08 여름철엔 '열' 조심하세요!
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유대한 교수
- 10 의료용 방사선 치료, 걱정하지 마세요!
방사선종양센터 방사선종양학과 정미주 교수
- 12 침묵의 살인자(Silent Killer) 췌장암, 누가 검사를 받아야 하나?
간·담도·췌장센터 소화기내과 김명환 교수

행복한-마음

한마음인

- 14 한마음 속 '남만 닥터 이사부'를 만나다
이창민 기획조정실장

in 의료현장

- 16 산업현장 속으로 걸어 들어간 병원
건강증진센터 출장검진팀

With 한마음

- 18 제28회 마음으로 보는 세상 현장
- 19 창원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 1주년 기념 음악회 현장

우리-한마음

스페셜 의료진

- 20 새롭게 한마음!
22인의 교수진을 소개합니다

이슈 & 뉴스

- 22 기념과 공헌
- 23 의료와 교육





최고가 되기 위한 과정에도 최초의 시작이 있다

발간사_하충식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창원한마음병원 이사장 하충식입니다.
1994년 개원 이래 해를 거듭하며 성장한 창원한마음병원이 어느덧 경남을 대표하는 병원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대지면적 2만 3,999㎡, 연면적 10만 9,200㎡에 지하 4층, 지상 10층, 총 1,008병상을 갖추어
한강 이남에서는 최대 규모의 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의 수준 높은 의료진을 확보하여
분야별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성공 앞에도 처음엔 ‘시작’이 있습니다.
창원한마음병원은 남들이 무모하다고 말할 만큼 큰 꿈을 꾸었고,
어떠한 도전이든 과감히 시작했고, 한 번 시작한 일은 꾸준히 실천해왔습니다.

병원 경영은 물론 지역 소외 아동들을 위한 ‘마음으로 보는 세상’을 올해로 28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해 의료기관 최초의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창단해 올해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창원한마음병원의 이야기를 담아낼 이 책도 최고가 되기에 앞서 힘찬 시작을 내딛습니다.

앞으로 창원한마음병원은 3,000병상 규모를 갖춘 세계적 수준의 아시아 의료허브가 되기 위해
경남의 자부심이 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할 것이며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병원으로 늘 함께할 것입니다.

그 과정을 담아내는 창원한마음병원의 소식지가 지역민과 소통하는 든든한 매개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역 의료를 발전시킬 창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창원한마음병원이 나아가는 길에 늘 한마음으로 함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창원한마음병원 이사장 

건강 한마음 행복 한마음을 꿈꿉니다

인터뷰_최경화 의료원장

“시작은 언제나 설렌다.
그렇지만, ‘처음’이라는 단어의 무게는 무겁다.
지난날 창원한마음병원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나아갈 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최경화 의료원장을 만났다.”

**Q. 창원한마음병원 웹진 1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A. 푸르른 여름날의 역동찬 에너지처럼, 창원한마음병원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성장하는 만큼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병원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되새기고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알리미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Q. 내외부 고객을 위한 ‘소통 창구’를 구현할 만큼 병원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우리 병원이 항상 지켜온 가치는 행복, 봉사, 노력 그리고 사랑
입니다. 직원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조직에서, 봉사 정신으로 의료
및 의료지원에 힘쓰고, 최고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과 모두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지금의 창원한마음병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그중에서도 ‘봉사’의 가치를 항상 강조해오셨습니다.

A. 나눔은 곧 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를 알기에 창원한마음
병원은 나와 우리, 지역민 모두와 상생하며 걸어왔습니다. 또한, 최고의
의료 서비스로 인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신념으로 인술보국에도
힘써왔습니다. 경남도민에게 긍지와 자부심이 되는 병원을 만들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역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Q. 병원의 핵심 가치인 ‘행복’에 대해 정의해주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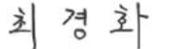
A. 건강과 행복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가치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다면, ‘행복’은 나의 선택입니다. 하루를 좋은 에너지로 채우고,
조직으로도 확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Q. 시작은 설레지만 그 무게감이 무겁습니다.
시작에 앞서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A. 새로운 일에는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흥미롭고 기분 좋은 일도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한마음으로 해나가면 그 안에서 다양한 성취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을 즐기도록 합시다.

Q. 이 글을 읽는 내외부 고객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A. 우리 삶에서 가장 최우선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곧 더불어
사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나와 우리, 내 이웃과 지역민 모두를 위해서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했으면 합니다. 그 실천으로서
한마음 웹진 1호가 좋은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창원한마음병원 의료원장 

아시아 의료 허브를 꿈꾸는 한마음, 새로운 내일로 향하다

창원한마음병원 5대 전략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라는 말은 곧 반복과 자기 확신에 관한 이야기다. 창원한마음병원은 1994년 개원 이래 꾸준히 목표를 강조하며 성취해왔고, 이는 곧 꿈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모두의 확신으로 이어졌다. 창원한마음병원이 향하는 길은 다섯가지 단어로 압축할 수 있다. 환자 편의, 최첨단 의료시설, 양질의 의료서비스, 기초의학, 그리고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병원. 규모의 확장을 넘어 지역 의료계의 새그림을 그리며 성장하는 병원, 창원한마음병원의 5대 전략에 대해 전한다.



환자 편의성을 갖춘 자연 친화적인 병원

대지면적 2만 3,999㎡, 연면적 10만 9,200㎡에 지하 4층, 지상 10층, 총 1,008병상을 갖춘 한강 이남 최대 규모의 병원이다. 건축 초기 단계부터 ‘센터’ 중심으로 설계해 환자가 이동하지 않아도 센터 내에서 주요 검사실과 진료실을 한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환자를 위한 원내 다양한 편의시설과 휴게공간을 갖추고 있다. 또한, 병원 전체가 천혜 자연에 둘러싸여 있어 환자의 ‘치료’는 물론 ‘치유’를 끌어내고자 한다.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

뇌, 심장, 중증외상, 암 분야 선두를 목표로, 신속하고 정확한 수술을 위한 1,320종의 첨단 장비를 갖추었다. 또한, 호흡기 질환자들의 치료가 가능한 29개의 양음압병실, 대규모 인명 재해 시에도 즉시 치료할 수 있는 고압산소치료실, 뇌, 심장 질환자의 시술과 수술이 동시에 가능한 첨단 하이브리드 수술실, 후유장애를 최소화하는 뇌졸중집중치료실, 고난도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로봇수술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31개 진료과, 27개 진료센터가 다학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수도권으로 집중되었던 의료 수요를 충족시켜, 경남의 의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자 한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진 확보 병원

뛰어난 교통 인프라를 갖춘 상황에서 전국의 수준 높은 의료진을 확보하여 분야별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8월, 최장·담도 명의 김명환 교수가 첫 진료를 시작하는 등 끊임없이 의료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변화와 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로써 수도권으로 집중된 의료산업 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지역 내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이로써 ‘메디컬클러스터’로의 도약을 꾀하고자 한다.



기초의학에 대한 투자 등 미래 지향적인 병원

기초의학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부산대학교와 포항공과대학교의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는 물론 휴먼바이오텍(주)과 함께 바이오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의료관광을 통한 국부창출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병원

‘인류애’를 위한 다양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장학사업, 결손가정 아이들을 위한 추억 만들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봄에는 마음으로 보는 세상,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영화 관람 및 호텔 식사, 가을에는 꿈나무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이 밖에도 지난해 6월,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최초로 창단해 총 25명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나눔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한다.

여름철엔 '열' 조심하세요!

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 5가지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오래 노출되었을 때 '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급성질환을 뜻한다.

우리는 흔히 '열받는다'라는 말로 격한 감정을 표출하고는 하는데, 실제로 인체가 열을 장시간 과도하게 받으면 심각한 질환이 발생한다. 열로 인한 질환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우리 신체에 필수적인 체온조절중추

사람의 신체는 체온조절중추를 통해 체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상성을 갖는다. 심부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열을 생산하며 근육과 간의 대사활동으로 생긴 초과 열을 시상하부의 체온조절중추가 피부와 폐를 통한 열 소실 기전으로 균형을 맞추어 항상 36.5~37.5°C 범위로 정상체온을 유지한다. 그러나 장시간 더위에 노출되게 되면 우리 몸은 이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지나친 더위에 노출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은 일사병에서 열사병까지 다양하다.

수분 보충이 필요한 열탈진, 일사병

일사병은 '열탈진'이라고도 불리는데 수분 보충이 부족할 시 일사병이 발생할 수 있다. 일사병에 걸리면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럼증과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를 느낀다. 또한, 오심, 발열, 발한, 잦은 맥박,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인다. 이때는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며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야 한다. 만약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휴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화하는 양상이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체내 전해질 균형의 무너짐, 열경련

더위 속에서 장시간 운동했을 시에는 열경련이 일어날 수 있다. 열경련의 원인은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체내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본다.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 전해질 음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1리터 물에 소금 2티스푼 정도를 넣어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때는 시원한 곳에서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풀어주고 이후 일정 시간 이상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심부로 가는 혈액량의 부족, 열실신

일시적으로 열로 인한 실신 또한 일어날 수 있다. 열실신은 체온이 높아지면서 열을 외부로 발산하기 위해 체표면의 혈액량이 늘고, 심부의 혈액량이 감소하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심부의 혈액량이 감소하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열실신이 발생한다. 이때는 시원한 그늘을 찾아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힌다. 머리보다 다리를 높게 하여 심부로 가는 혈액량을 천천히 증가시키도록 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뇌에 큰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열사병

온열질환 중 가장 위험한 것은 열사병이다. 더위에 오래 노출되었으나 땀이 나지 않고 '오심과 구토', '의식 변화'가 있다면 열사병을 의심할 수 있다. 열사병은 다양한 장기에 손상을 입히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고 특히 뇌에 가장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확률이 높으며 치사율 또한 높다. 특징적인 것은 40°C 이상 체온이 상승하면서도 땀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의식 저하와 오한, 잦은 맥박, 빈호흡, 저혈압 등의 증상이 발현된다. 이때는 환자를 즉시 그늘로 옮기고, 물을 뿌리고 부채나 선풍기로 말려주도록 하며 동시에 얼음 주머니 등으로 목, 겨드랑이, 서혜부(사타구니)와 같이 큰 혈관이 지나가는 곳을 시원한 상태로 유지한 채 빠르게 119에 신고해야 한다. 단, 의식이 없는 경우 물을 마시도록 하는 행위는 위험하니 하지 말아야 한다.

이어지는 폭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온열질환은 어느 순간 위험한 상태가 되어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어진다. 노인과 아이, 만성질환자 등 스스로 대처가 어려운 상태일 경우 특히 여름철 온열질환에 주의해야 한다. 가령, 폭염 속 장시간 야외에서 노동하는 분들이나 에어컨 없이 집에서 홀로 생활하는 만성질환자들에게는 주기적으로 위험을 알려야 한다. 소아의 경우에는 차량 내부에 갇히면서 발생하는 온열질환의 비율이 여전히 매우 높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35°C의 기온에서 4시간 동안 야외 주차했을 경우 내부 온도가 무려 78°C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그늘진 곳에 차를 세워두어도 갑자기 별이 나오면서 뜨거워지는 경우도 있으니 절대 안심하지 않고 주의해야 한다. 또한 실외활동 시 고온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활동할 시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관찰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건강한 성인일지라도 언제나 적절한 온도와 수분, 전해질을 유지하여 건강하게 여름 나기를 해야 한다.

열에 대처하는 방법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 취하기



수분과 전해질 보충하기



심부로 가는 혈액량 유지하기



어린 아이를 차량 내부에 혼자 두지 않기



만성질환자에게 주기적으로 위험 알리기



유대한

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교수

진료분야

중증외상, 독성학

진료시간표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외래	-	-	-	-	-	-

응급의학과 특성상 별도의 진료일정이 없습니다. 문의 전화 055-225-0000

의료용 방사선 치료, 걱정하지 마세요!

방사선 치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암 진단을 받은 주인공이 항암치료를 받는 장면은 자주 봤을 것이다. 그러나 방사선 치료받는 장면은 보기 드물고, 그러다 보니 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환자의 두려움은 막연히 커진다. 의료용 방사선 치료에 대한 오해를 풀고, 올바른 방사선 치료의 정의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방사선 치료, 왜 두려울까

뉴스를 보다 보면 '방사능'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가령, 일본에 지진이 발생해 해안도시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어 돌연변이 물고기가 나왔다는 이슈 등을 접하면서 '방사능 피폭'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두려움은 더욱 높아졌다. 그러다 보니 처음 방사선종양학과를 내원하는 환자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다. 암 진단을 받은 것도 청천벽력 같은데, 그보다 더 무서운 방사선 치료라니! 방사선종양학과 외래에 들어서는 순간 '방사능'에 노출된다는 착각으로 입구에서 들어서기를 주저하는 환자들도 있다. '방사능'과 '방사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일이다.

방사선 치료가 흉부 X-선 촬영과 비슷하다고?

만 40세 이상 성인이라면 국가건강검진을 통해서 흉부 X-선 촬영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때 "흉부 X-선을 촬영했으니 내 몸에서 방사능이 나올 거야"라고 걱정하는가? 흉부 X-선 촬영 시, X-선은 우리 몸을 지나가고 방사선은 남는 것이 아니다. 방사선종양학과에서도 마찬가지로 X-선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한다. 단지 두 X-선의 차이는 에너지의 높낮이에 있다. 흉부 X-선 촬영은 비교적 낮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방사선종양학과에서의 치료는 비교적 높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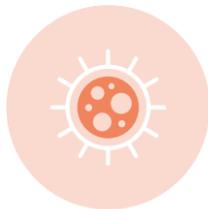
방사선 치료의 특징



비침습적인 치료로 통증이 없음



필요한 부위에만 국소적 치료 가능



암 조직 크기를 줄여 수술 효과 극대화



장기의 구조와 기능 보존

그렇다면 '방사선' 치료는 수술 항암과 어떻게 다를까

방사선은 미세먼지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다. 온열치료처럼 열감이 느껴지지도 않는다. 일반적인 감각으로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방사선종양학과에서는 환자 치료 전 장비 및 환자에 대한 QA(Quality assurance)를 통해 치료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수술에 비해 비침습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 없고, 전신에 작용하는 항암치료와 비교했을 때 방사선이 들어가는 부위에만 영향을 주는 국소 부위 치료이기 때문에 전신 부작용은 흔하지 않다. 가령, 머리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탈모가 일부 생길 수 있으나 폐나 복부에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탈모가 진행되진 않는다.

과거와 현재의 방사선 치료는 얼마나 발전했을까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 기능은 단순하고, 크기는 손에 들고 다니기 부담스러운 정도로 크고, 불편감도 컸다. 그러나 지금은 '주머니 속에 휴대할 수 있는 개인 컴퓨터'로 불릴 만큼 크기와 기능이 이전에 비해 월등히 좋아졌다. 방사선 치료기도 비슷하다. 초창기 방사선 치료기는 저에너지를 이용했기 때문에 심부에 위치한 암을 치료할 때 피부 부작용이 심했다. 치료 후 급성기 부작용으로 피부가 화상 입은 것처럼 발적과 수포(물집)가 생기고, 만성기에는 피부가 가죽처럼 딱딱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장비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부작용이 많이 감소하고, 치료 효과는 더 높아졌다.

창원한마음병원에서의 방사선 치료는

창원한마음병원에서는 Elekta사의 Versa HD 선형가속기를 사용해 치료한다. 기존에 3D 입체방사선 치료로 6~7주 동안 시행하던 유방암 치료를,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로 단 4주로 단축하고, 폐와 심장에 들어가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여 부작용도 낮추었다. 영상 유도 방사선 치료로 종양의 모양과 위치를 보고 정확히 방사선치료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주변 정상 장기들로 인해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부위도 방사선 수술로 치료를 대신할 수 있다. 첨단 치료장비가 도입되어, 방사선 치료받으려 상경하는 불편함을 감소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 집 근처 대학병원에서 알맞은 치료를 통해 편안한 치료를 우선하는 것이 좋다.



창원한마음병원 Versa HD 방사선 선형가속기



정미주

방사선종양센터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진료분야

뇌종양·두경부암·폐암·유방암·소화기암
부인암·비뇨기암·혈액암·육종·전이암

진료시간표

	●	●	●	●	●	●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외래	●	●	●	●	●	●

실제 진료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예약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전화 055-225-0000

침묵의 살인자(Silent Killer) 췌장암, 누가 검사를 받아야 하나?

췌장암 진단을 권고하는 주요 상황

췌장은 십이지장으로 소화효소를 분비하여 소장에서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흡수를 돕고 혈액 내로 인슐린, 글루카곤 호르몬을 분비하여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췌장의 크기는 손바닥만 하며 납작하게 생겼다. 이전에는 '이자(胰子)'라고도 불리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상당히 뒤쪽(척추뼈앞) 후복막에 있고 앞으로는 위장이 지나가는데, 이러한 요인이 복부 초음파 검사로 췌장을 보기 어려운 이유이다.

췌장암 얼마나 무서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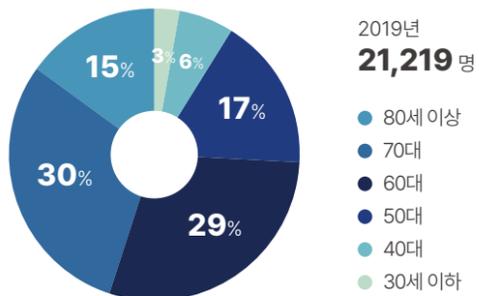
췌장암은 현재 국내 암 발생 빈도 전체 8위를 차지할 만큼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연령대로 보면 50대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며 60대와 7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더 흔한 질환이다.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이상 생존률이 환자 10명 중 1명꼴로 주요 암 중에서 제일 낮으며 거꾸로 진단 후 1년 내 사망률은 소화기암 중에서 가장 높은 무서운 질환이다. 췌장암의 치료는 빨리 발견해서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환자 10명 중 2명만이 진단 당시 수술이 가능하다. 수술을 받아도 거의 반수에서 종양이 재발하며 이는 항암주사나 방사선치료, 면역 요법, 표적치료제 등이 췌장암에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왜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나

췌장암의 예후가 매우 나쁜 이유는 한마디로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늦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초기 증상이 애매하고 비특이적이어서 더 흔한 위장질환으로 오인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초기 췌장암 환자(진단이 제대로 되었으면 수술로 완치되었을 환자)들이 처음에 의심을 못 해서 위내시경 검사, 복부초음파 검사를 시행 받고 위염, 장염 진단 하에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몇 달을 허송세월한 경우가 적지 않다. 누구나 경각심을 갖는 황달, 체중감소, 심한 복통 등은 대부분의 경우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췌장암의 연령별 추이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



2019년 21,219 명

- 1 국내에서 매년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 암 발생 빈도 전체 8위)
- 2 50대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며, 나이가 들수록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60대와 7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 3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더 흔하다.

췌장암 조기 발견을 위한 TIP

중년 이상 연령에서 아래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있으면 복부 CT나 MRI 검사를 추천한다.

- 소화불량, 식욕부진, 복부 불편감, 배변습관 변화 등의 위장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약물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을 때
- 50세 이후 당뇨병을 처음 진단받았거나 원래 있던 당뇨병이 이유 없이 혈당조절이 잘 안 될 때
- 췌장에 물혹(낭종)이 있을 때
- 만성췌장염 환자, 유전성 췌장염 환자, 원인을 알 수 없는 췌장염 환자
-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을 때
- 혈액 검사상 CA19-9가 증가했을 때



누가 췌장암 검사(CT나 MRI)를 받아야 하나

췌장암이 수술로서 완치하려면 크기가 작아서 종양이 췌장 내에 국한되어 있고 주변 임파선이나 혈관에 퍼지지 않아야 한다. 문제는 이때 췌장암 환자(췌장암 1기)가 호소하는 증상이 복부 불편감, 식욕부진, 소화불량, 변비, 설사, 가벼운 명치부위 통증 등으로 매우 애매해서 기능성 위장 장애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과 구별이 안 된다는 것이다. 췌장암의 경우 종양이 빨리 자라고 주변 혈관으로 암세포가 잘 침투해서 초기 증상이 나타난 지 2~3개월 만에 수술이 불가능한 췌장암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중년 이후에는 비록 막연한 위장 증상이라고 해도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약물치료로도 호전되지 않을 때는 췌장암 검사를 받아야 수술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췌장암을 예방하려면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의 신체 증상이 췌장암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한 번쯤은 의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의사는 췌장암 환자가 초기에 막연한 위장 증세로 병원을 방문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길은 첫 진찰에서 췌장암을 의심하여 췌장 정밀검사(복부 CT나 MRI)를 시행하기까지의 기간을 얼마나 단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김명환
간·담도·췌장센터 소화기내과 교수

진료분야
담낭/담도질환(담석, 용종, 담도암, 담도염)
췌장질환(췌장염, 췌장암)

진료시간표 ● 종일진료 ● 오전진료 ● 오후진료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외래	●	●	●	●	●	●

실제 진료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예약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전화 055-225-0000

한마음 속 '낭만닥터 이사부'를 만나다

칭찬 릴레이 그 첫번째 주인공, 이창민 기획조정실장

이창민 실장은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의 주인공 같다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환자의 심리상태에 대한 공감과 치료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환자분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우리 병원 의료진 중 한 사람이다.

첫 번째 칭찬 릴레이 주인공! 소화기내과 이창민 실장을 소개한다.



Q. 첫 번째 칭찬 릴레이 주인공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창원한마음병원에서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소화기내과 이창민입니다.

Q. 칭찬 릴레이 주인공으로 지목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A. 첫 번째 주인공이라는 과분한 자리에 저를 선정해주셔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잘한 것은 없지만, 그저 병원에서 잘 웃고 다니고 인사를 잘해서 우리 직원들이 좋게 봐주어 주인공이 된 것 같습니다.

Q. 근무하신 지 올해로 14년 차!

창원한마음병원에 오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2005년에 경남도청에서 역학조사관(*공중보건의)으로 근무하며 창원과의 인연이 생겼습니다. 당시 첫째 아들을 창원한마음 병원에서 출산하며 창원에 이렇게 좋은 병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후 오랫동안 우리 병원에서 근무하게 된 이유는 가족같이 끈끈한 직장 동료 간의 정과 항상 저를 믿고 오시는 환자들의 고마운 마음 덕분입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한마음과 함께하게 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공중보건의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의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

Q. 우리 병원 기획조정실장님이기도 하시죠. 어떤 일을 맡고 계시나요?

A. 우리 병원의 발전상을 제시하고, 병원 미래에 대한 전략기획과 부서 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병원 모든 직원의 힘든 부분을 찾아 도와주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소화기내과는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가요?

A. 흔히 느끼는 소화불량 및 복통을 치료하는 부서입니다. 저는 급만성 간담도질환, 위장관질환(위식도역류질환, 과민성 장 증후군, 간경변증, 간암 등)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학부시절, 내과 중 소화기내과 교과서가 제일 두꺼웠습니다(하하). 소화기쪽은 질환이 다양하고 많은 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Q. 직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늘 즐겁고 활기찬 직장생활이 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좋은 일도 힘든 일도 동료들과 함께 나누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분 좋은 에너지를 뿜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한마음인이 됩시다. 창원한마음병원 파이팅!



Q. 근무하시며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A. 율선병(간에 구리가 축적되는 병)으로 인해 서울에서 치료를 받다가(거주지가 전해여서) 저에게 다시 몇 년간 치료를 받던 분이 계십니다. 우연한 기회에 시청한 TV 다큐멘터리에서 이 환자가 주인공으로 출연했는데, "창원에서 간 질환 치료를 잘하고 있었다"라고 언급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오랫동안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 환자분께 편지를 받아 힘이 났습니다.

Q. 두 번째 칭찬 릴레이 주인공 지목을 부탁드립니다. 지목한 이유도 함께 알려주세요.

A. 내시경실 환자 이송 담당 권일현 반장님을 지목합니다. 권일현 반장님은 항상 밝게 웃으시고 유머러스하며,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분위기를 유도하는 분입니다. 환자를 섬세하게 챙기며, 환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응대를 잘하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내시경실 특성상 수면 마취로 인해 환자분들이 반장님을 기억하지 못하죠. 환자분들이 전하는 "고맙다"는 말을 직접 듣지 못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 감사함을 알아주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네요.

“친절한 마음씨를 찾아요!”
‘월별 칭찬 릴레이’는 친절직원으로 꼽힌 창원한마음병원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릴레이 형식으로 담아내는 코너입니다. 병원을 이용하시면서 느낀 나만의 친절 의료진을 뽑아주시면 그 주인공을 인터뷰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산업현장 속으로 걸어 들어간 병원

건강증진센터 출장검진팀



(왼쪽부터) 김성동, 이선우, 신혁철 선임, 함정오 교수, 전승희, 노송이, 오다현 선임, 임정현, 이순희, 조혜인, 최상정 팀장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바쁘다.” 그만큼 일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일에 몰두하다 보면 병원에 한 번 올 시간이 없어 병이 커질 대로 커지고 나서야 병원을 찾는 이들도 허다하다. 이런 상황의 사람들을 위하여 산업현장으로 들어간 병원이 있다.

의사, 간호사부터 숙련된 의료기사까지, 최첨단 건강진단 의료장비를 구성하여 직접 찾아가는 창원한마음병원 ‘건강증진센터 출장검진팀’이다.

어떠한 악천후에도 근로자와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그들을 소개한다.

첫해 특수건강진단기관평가 ‘S등급’ 획득

창원한마음병원 건강증진센터 출장검진팀은 2015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받음과 동시에 두산인프라코어, LG전자 창원공장, 쌍용자동차 창원공장, 덴소코리아 등 지역의 굵직한 기업들의 근로자 건강진단을 수행하는 2022년 기준, 6년 차 특수검진팀이다. 관할지역 내에서는 다소 후발주자이지만, 그 저력은 가히 대단하다. 첫 특수건강진단기관평가에서 S등급(2017년)을 획득했고, 각종 평가와 건강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체에서도 만족도가 높아 명실상부 믿음만한 출장검진기관으로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위기의 상황에서 더욱더 빛을 발한 이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2020년은 더욱더 창원한마음병원 출장검진팀이 빛을 발한 해였다. 감염확산의 예방을 위해서 모두가 마스크, 방호복, 페이스 쉴드, 보호 글러브로 중무장을 한 상태로 건강진단을 수행했다. 각종 건강진단 장비를 엘리베이터가 없는 3~4층까지 짊어지고 올라갔고, 여름철 높은 기온에다 방호복, 마스크 사이에서 올라오는 열기로 온몸이 땀으로 흥건해지고, 페이스 쉴드에는 김이 서린 물방울이 흘러내려 곤혹을 치르면서도 묵묵히 검진에 힘썼다.

모두의 안전을 지켜낸 완벽한 임무 수행

지금도 물론 감염예방 조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지만,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면 정말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었다. 다수의 근로자를 만나고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우리가 감염원이 되어 근로자에게 질병을 옮기지는 않을까?’, 또는 ‘그 반대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무거운 마음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전폭적인 병원의 지원과 철저한 개인의 위생, 감염예방 조치를 통한 업무수행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출장검진팀에서는 단 한 명의 직원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고 모두가 안전하게, 타인의 안전까지도 지켜내며 출장 검진 업무를 완벽히 수행해냈다.

근로자의 부름에 언제나 준비된 이들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바쁜 삶과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 이러한 양팔 저울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일상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삐 돌아가는 현장 속 때로는 자신의 건강조차도 뒤로 미루는 근로자들. 이들이 부른다면 언제 어디든 달려가는 출장검진팀. 고되고 힘든 일정 속에서도 한목소리로 근로자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며 검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하여 약진하고 있는 창원한마음병원 건강증진센터 출장검진팀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Mini interview



함 정 오 교수
직업환경의학과 (출장검진팀)

Q.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작업환경 측정을 통해 작업 환경의 유해인자를 측정 및 평가하고, 근로자에게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유해 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산업군 종사자나 야간 근로자 등이 그 대상입니다. 이밖에도 근로자가 100명 이상으로 내원이 어려운 사업장도 해당됩니다.

Q. 현장으로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확보하여 작업 손실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장과 장소, 검진일시, 대상자 수 등 출장 건강검진계획서를 바탕으로, 건강검진 대상자가 있는 현장으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이 찾아가서 혈압 측정, 신체 계측, 청력 검사, X-ray 검사, 폐활량 검사 등을 수행합니다.

Q. 특수건강검진은 왜 중요한가요?

작업환경에 따라 근로자는 소음성 난청, 근골격계 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작업환경에 대해서 인지하고, 건강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료현장을 소개합니다!"

‘행복한-마음’은 특정 주제에 따른 창원한마음병원 소식을 인터뷰로 전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19 속 창원한마음병원 의료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고군분투했던 현장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노는 게 최고 좋아요” 아이들 마음으로 보는 세상

제28회 마음으로 보는 세상 현장



아이들은 배우는 것에서 자란다. 배움은 책 속에도 있고, 숲과 들에도 있고, 나무와 꽃에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성장한다. 한 사람의 성장을 지지하는 것 또한 배움이다. 아이들에게 충분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눔의 미학을 실천하고자 시작한 창원한마음병원 '마음으로 보는 세상'은 올해로 28년째 오랜 감동과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다. 올해의 순간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기억될까.

아이들에게 선물한 최고의 선물, 행복한 시간

“자! 여기로 모이세요” 지난 5월 14일, 마산 로봇랜드 입구 피약별 아래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였다. 애타게 기다린 하루가 드디어 시작됐다. 관계자를 포함해 약 1,000여 명의 인원이 일사불란하게 단체사진 촬영을 마치고, 아이들은 잔걸음으로 놀이기구로 향했다. “나는 이걸 탈 거야”, “난 이거!” 한동안 아이들의 왁자지껄 웃음소리만이 주위를 감싸고 그날의 더위는 온데간데 없었다.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의 연속이지만, 아이들은 그것마저도 뛰어넘는 에너지를 발산한다는 사실을 또 다시 직관한 하루였다.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마시고 뛰노는 덕분에 덩달아 우리는 행복해졌다. 마산 로봇랜드뿐만 아니라 영·호남지역 아동 4,000명의 하루가 웃음으로 가득했다. 행사의 의미는 이것으로 충분했다.

나누는 이들에게 최고의 행복, 함께하는 기쁨

1995년 첫해 참가자 120명으로 시작된 행사는 이제 지역의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대규모 행사가 되었다. ‘나눔은 곧 채움’이라는 리더의 말은 사실이였다. 아이들의 발강게 익은 볼만큼 나눔은 깊은 여운을 남기고, 누군가의 성장에 큰 자욕을 남겼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아이들의 편지에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마음으로 보는 세상은 아이들이 있어 행복한 세상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아이들과 함께할 것이다. 그들이 완전한 성인이 되어 또다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1995 ~ 2022년
28년째

2022년 버스 동원 대수
130대

1995~2022년
누적 참여수
30,000명

2022년 영·호남 참여 기관
210개 기관

2022년 전체 참여수
4,000명



“나의 직업은 오케스트라 연주가입니다!”

창원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 1주년 기념 음악회 현장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자부심'이다. 사회 일원으로서 제 몫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의 근간이다.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단지, 조금의 제약이 있을 뿐. 잘할 수 있는 일임과 동시에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면, 누구에게도 기회는 동등해야 한다. 창원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는 그렇게 누군가의 자부심으로 지난해 탄생했고, 올해 여름 1주년 기념 음악회를 열었다.

수 천 번 연습한 음악, 수 만 번 울리는 감동

지난해 7월 창단 후, 매주 수요일 시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한 이들. 1주년 기념 공연 또한 같은 자리인 창원한마음병원 로비에서 열렸다. 모두가 숨죽여 첫 곡을 기다린 순간, Yesterday 핸드벨 콰이어 소리가 울려 퍼지자 환자와 보호자, 공연을 찾은 시민 모두 편안함 감상에 젖어 들었다. 장애인 단원 포함 50여 명의 단원은 지휘자의 손끝에 따라 물 흐르듯 연주를 이어갔다.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OST 중 하나인 'La vita e bella(인생은 아름다워)', 가수 콜드플레이의 노래인 'Viva La Vida(비바라비다)' 등을 선보였고 음악으로 하나 된 순간에는 어느 것도 제약이 되지 못했다.

지난 1년, 음악으로 켜켜이 쌓인 총 25명의 자부심

창원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는 하충식 이사장이 (사)희망이룸의 제안에 따라 발족한 기업형 장애인 오케스트라로서, 오케스트라 단원 중 총 25명은 창원한마음병원 및 시립마산요양병원 소속 정규 직원이다. 이들을 위한 '예술인 직무'를 별도 신설하여 정규 직원으로 고용한 이번 사례는 사회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음악으로 삶을 승화해내는 이들에게, '고용'이란 사회인으로서 얻는 또 다른 기회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음악을 기쁘게 소비했다. 그리고 그들은 당당하게 연주를 제공했다. 그러므로 이들의 직업은 단연 오케스트라 연주가다.



2021 ~ 2022년
1주년

기업형 장애인 오케스트라
예술인 직무 신설

2021~2022년
실내외 총 공연 횟수
80회 이상

창원한마음병원, 시립마산요양병원 소속
정규 직원 **25**명

매주
수요일 공연

새롭게 한마음! 22인의 교수진을 소개합니다

2022 신규 입사 의료진 소개

양질의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심축은 단연 의료진이다. 2022년 한마음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전문가들을 소개한다.



김명환 교수
소화기내과

담낭/담도질환(담석, 용종, 담도암, 담도염),
췌장질환(췌장염, 췌장암)



황준성 교수
소화기내과

췌장-담도질환(담석, 담낭암, 담도암, 췌장암), 간 질환
(급만성간염, 간경변, 간암), 위대장 질환(위암, 대장용종,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치료 내시경(췌-담도내시경,
내시경초음파, 담도경)



김요한 교수
소화기내과

소화기질환, 위-대장질환, 간질환, 췌-담도질환 등



박나래 교수
소화기내과

내시경, 건강증진, 환자교육



김성민 교수
신장내과

혈액투석, 급성콩팥손상, 만성콩팥병, 사구체신염,
요로감염, 부종 등



오예슬 교수
호흡기내과

급만성 호흡기 질환, 폐렴,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간질성 폐질환, 폐결핵, 알레르기 질환, 기타 호흡기
질환 등



남기동 교수
영상의학과

영상판독(MRI, CT, 초음파, X-ray)



장윤형 교수
영상의학과

영상판독(MRI, CT, 초음파, X-ray)



손석우 교수
외과

위암, 대장항문, 복강경, 소아외과, 간담췌외과



이동후 교수
이비인후과

부비동염(축농증), 비염, 비중격만곡증, 갑상선종양,
침샘종양, 후두음성질환, 편도 및 아데노이드 질환,
중이염, 난청, 이명, 보청기 등



류희정 교수
류마티스내과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통풍, 강직성척추염, 척추
관절염, 루푸스 및 면역염증성 질환, 베제트병 및 혈관염,
전신성 근골격계 질환, 섬유근육통 등



김재중 교수
마취통증의학과

노인마취, 산과마취, 부위마취 등



김봉희 교수
병리과

외과병리



김솔아 교수
악안면성형재건외과

사랑니발치, 난발치, 치조골수술, 임플란트, 일반보철 등



정영인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성인정신의학, 기분장애, 조현병, 강박장애, 공황장애,
수면장애, 기타 신경증적 장애 등



김종빈 교수
정형외과

오십견, 어깨관절, 무릎관절, 고관절, 방아쇠 수지,
쇄골 골절, 상완골 골절, 요척골 골절, 대퇴골 골절,
경비골 골절, 발목 골절 등



이민호 교수
비뇨의학과

요로결석, 전립선비대증, 신경인성방광, 요로감염, 비뇨기
내시경수술 등



이종복 교수
비뇨의학과

전립선질환, 요로결석, 여성비뇨기과학, 비뇨기종양 등



장석주 교수
성형외과

재건 성형, 미용성형, 피부암, 안면골골절, 선천성 기형,
유방재건 등



하성진 교수
정형외과

인공관절, 관절내시경, 어깨관절, 무릎관절, 고관절,
외상(골절), 수부외상, 손목관절 등



연재현 교수
중환자의학과

대량재해, 재난의학, 소생의학, 중환자의학, 외상학 등



김재윤 교수
직업환경의학과

특수건강검진, 사업장 보건관리 등

창원한마음병원 × 기념과 공헌



창원한마음병원, 개원 28주년 기념식

지난 3월, 창원한마음병원이 개원 28주년 기념식을 했다. 창원한마음병원은 다학제적 센터 중심의 진료프로세스를 기반으로 27개 진료센터를 구축했다. 이전 개원 이후 지금까지 응급환자를 포함해 외래환자 120만 630명이 진료 받았으며, 이중 로봇 수술과 복강경 수술, 암 수술 등 수술 건수는 12,240례, 뇌·심혈관센터 진료는 12만 416명, 뇌심혈관중재시술건수는 6,495례에 달한다. 이처럼 지역에서도 신속하게 뇌, 심장, 중증외상, 암 치료가 가능해진 덕에 의료 지형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경화 의료원장, 부산대 명예경영학박사 학위 수여

지난 6월, 창원한마음병원 최경화 의료원장이 부산대학교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산대는 지역 의료계의 중추인 '창원한마음병원'과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는 호텔 브랜드인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호텔'을 운영해 온 탁월한 경영능력과 나눔·후원 활동, 교육 발전을 위한 기부 등 업적을 높이 평가해 최경화 의료원장에게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한편, 최경화 의료원장은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2020년 경상남도지사 표창, 2021년 국민교육 발전 유공 국민포장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부산대학교에 100억 원 기부 약정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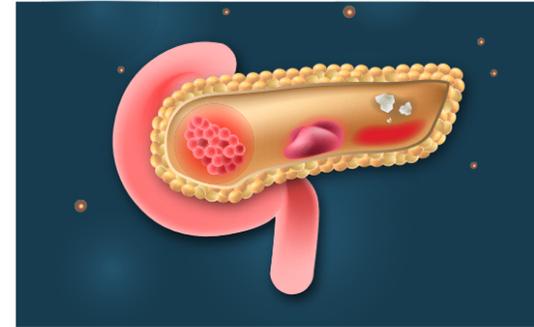
지난 1월, 창원한마음병원이 부산대학교에 총 100억 원의 발전기금 기부를 약정했다. 약정식은 하충식 이사장과 최경화 의료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한마음병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하충식 이사장과 최경화 의료원장은 2004년부터 모교인 부산대 의대를 지원하기 시작해 2013년 3억 원, 지난해 7억 원 등 지금까지 10억 원 이상의 장학금과 발전기금을 꾸준히 기탁해왔다. 총 100억 원을 약정하면서, 매년 발전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이번 약정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교육연구 혁신기금과 의과대학 장학기금 등에 쓰일 예정이다.



덴마크 대사관과 옥토 인형 전달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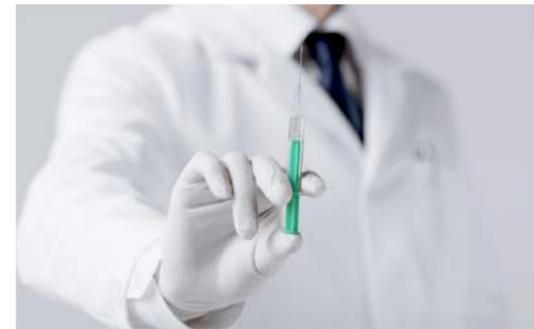
지난 6월, 창원한마음병원에서는 주한 덴마크 대사관이 주관하는 '소아 환우들을 위한 옥토(문어) 인형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창원한마음병원에는 주한 덴마크 대사관(아이너 엔센)과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사장 라나 아즈파 자파) 관계자들이 방문해 덴마크 옥토 인형 100개와 레고 장난감 500개를 소아 환우를 위해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옥토 프로젝트(Octo Project)'의 일환으로, 기부를 통해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과 영유아기 감각 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다.

창원한마음병원 × 의료와 교육



췌장·담도 명의 김명환 교수, 8월 진료 시작

이달 8월, 김명환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창원한마음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했다. 수도권이 아닌 경남 지역을 선택해 지역민을 위한 의료 공헌에 앞장 서게 됐다. 김명환 교수는 국내외에서 췌장·담도 분야 명의(名醫)로서 국내 최초로 췌장암을 조기 발견하고 완치시켰다. 또한, 자가면역성 췌장염을 국내 처음 보고한 인물이다. 이러한 공로로 지난 2008년 국내 의학계에서 가장 저명한 분수의학상을 수상했다.



마취적정성평가 2년 연속 1등급 획득

지난 5월, 창원한마음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발표한 '마취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종합점수 98.9점을 획득하며, 2018년 1차 평가에 이어 최고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평가는 마취 영역의 의료 질 개선 및 환자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심평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2021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진행됐다. 평가지표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시간, 마취통증의학과 특수 장비 보유 종류 수, 마취 전 환자 평가 실시율 등이다.



경남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선정

지난 4월, 창원한마음병원이 경남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경남도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아동학대 광역 전담 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이뤄졌다. 창원한마음병원은 아동학대의 초기 발견과 판단, 치료 등에 적합한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경남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아동학대 판단과 치료 지원, 피해 아동에 대한 회복의 의료적 자문과 해당 아동들을 위한 신체적, 정신적 진료와 상담을 제공한다.



조선대학교 임상교육실습 실시

지난 3월, 창원한마음병원과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이 교육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3월에서 6월까지 조선대학교 의학과 3학년 총 66명이 몇개 조로 나뉘어, 조별로 각 2주씩 16주간 임상실습에 참여했다. 내과(내과 병동, 내과 진찰실, 내시경실 등) 및 응급의학과(응급의료센터, 처치실, 의국 등)를 중심으로 실습에 참여했고, 이로써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임상실기 능력을 배양하고, 다양한 임상 경험의 기회를 얻었다.



QR 링크에 접속해
설문에 참여해 주세요!

“친절한 마음씨를 찾습니다!”

우리 병원의 친절한 마음씨를 추천해주세요!
당신이 추천한 마음씨를 찾아 ‘한마음 기자단’이 찾아갑니다.



마음씨란?

한마음의 구성원을 부르는 “마음씨~”이기도 하고,
곱디 곱게 마음을 쓰는 태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한마음에서 만난 ‘친절한 마음씨’를 알려주세요!



창원한마음병원
CHANGWON HANMAEUM HOSPITAL

HANYANG UNIVERSITY CHANGWON HANMAEUM HOSPITAL

세계적 수준의 아시아 의료허브! 2030년, 3,000병상!

뇌 | 심장 | 중증외상 | 암

24시간 365일! 경남도민과 언제나 함께 합니다!



창원한마음병원
CHANGWON HANMAEUM HOSPITAL



www.hanheart.kr 055.225.0000

Hi 한마음, High 한마음!

2022년, <Hi 한마음>
첫 호가 탄생했습니다.

언제나 건강한 마음,
함께할수록 더 행복한 마음.
모두에게 그런
한마음이 되고 싶습니다.

시작이자 출발점에 선 우리,
여름날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창원한마음병원
CHANGWON HANMAEUM HOSPITAL